

“연등회-팔관회-제석도량 고려인 공동체의식 고양”

안지원씨 '고려 불교의례연구' 서 주장

“고려에서 성행했던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은 국가적으로도 중요시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불교의례들이므로 어떤 다른 불교의례들보다도 고려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계를 같이 했다.”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 연구-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 98학년도 후기 박사학위를 받은 안지원 강사(동국대)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은 고려시대 어떤 불교의례들보다 일부 저층이나 특정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층적으로 실행되었다”며 “고려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서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닌 사회적 행사가 되어 고려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등·팔관회는 민간적인 불교행사가 국가의례화한 것이고 제석

“단순 종교의례 벗어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 현재 연등축제의 뿌리”

도량은 왕실중심의 불교의례가 민간에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고려의 연등회가 정월 혹은 2월에 이루어진 것은 본래의 불교적 의미에 재래의 제천신앙과 농경의례가 부가된 것으로 연등행사를 통해 재래의 제천신앙과 농경축제가 사회적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개경과 서경의 연등회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배층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계층간의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로 마련된 것으로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왕조를 수립한 고려정부의 사회통합에 대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지방에서의 연등회는 지방공동체의 결속



을 다지고 재확인하는 행사로서 중앙의 연등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팔관회의 사회적 성격은 대내적인 면에서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전국 각지의 토착신앙을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구조로 종합하는 역할을 했다. 함께 의식에 참여한다는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고려인으로서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다. 대외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조가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나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안 강사는 연등·팔관회에는 기국제와 추수감사제같은 농경의례적 측면과 전시대의 토속신앙적 측면들이 포용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역사적 기능 등이 복합적인 국민축제 형식을 띠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연등·팔관회



연등·팔관회가 국민축제 형식을 띠고 있었음을 밝힌 안지원씨의 박사학위논문은 오늘날 연등축제의 역사적 뿌리를 밝혀 주목된다.

에서는 고려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연회의식, 군신조가, 외국인조가 등의 의례절차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개인적 기복을 위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정치적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도 중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석도량은 왕권 신성화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서 왕실에 한정된 불교의례였다가 점차 전체층으로 확산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집중적으로 실행됐고 개인적 기복신앙으로도 유행했음을 밝혔다.

특히 안 강사의 이번 논문은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범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려는 이 때 연등축제의 기원인 연등회가 가지

고 있던 역사적 위치를 밝히고 있어 주목되는 논문이다.

안 강사는 한국불교사상사 연구에서 불교사와 교리의 접맥으로 일찍이 그는 「안계현 박사와 부녀기간이다. 이번 연구는 불교사 연구에서 팔관회와 연등회를 단독 주제로 설정하는 등 불교의례 연구에 천착했던 안 박사의 뒤를 잇는 연구여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신라정토왕생사상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 박사는 1956년 「팔관회고(八關會考)」, 1959년 「연등회고(燃燈會攷)」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있다. 19일은 안 박사의 18주기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투데이 사이버 기행

데일리 쟈

‘오늘의 선구’ ‘삼화로 보는 선경’ 등 불교적 일러스트의 묘미 감상 기회

세간의 일상을 선경(禪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불자 네티즌 가운데 모니터와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간의 일상에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데일리 쟈(dailyzen)’를 방문해 보자.

미국의 일러스트 작가 크리스 리델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오늘의 선구 △삼화로 보는 선경 △고승 법어와 선시 △이야기 방 △다른 사이트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늘의 선구’에는 중국 서천의 제22조 마다라존의 오도송인 “마음이 끝없는 곳을 향해/그저, 세월이 흘러도 따라 성(性)을 알게 되면/기쁨도 슬픔도 없겠지.”가 소개되어 있다.

또 사이트의 운영자인 리델이 오도송을 구제화시킨 삽화를 열람할 수도 있다.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그려진 리델의 삽화에는 거대한 야산을 향해 똑바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리델은 이 삽화에서 자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본성을 파악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방황하지 않고 희로애락을 넘어 편안한 마음의 경지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삼화로 보는 선경’에는 명상, 정화, 산(山), 경이(驚異) 등을 주제로 리델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 8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제공되는 일러스트는 작품을 스캔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삽화는 리델

이 포토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들. 이들 삽화들은 부드러운 곡선 보다는 직선을 이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강직하고 분명한 선(禪)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일러스트란 피사체의 특징과 그 움직임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림. 미국 일러스트 화단에서 거장으로 꼽히는 리델에게 선(禪)의 인상은 바로 끝없는 선, 그 자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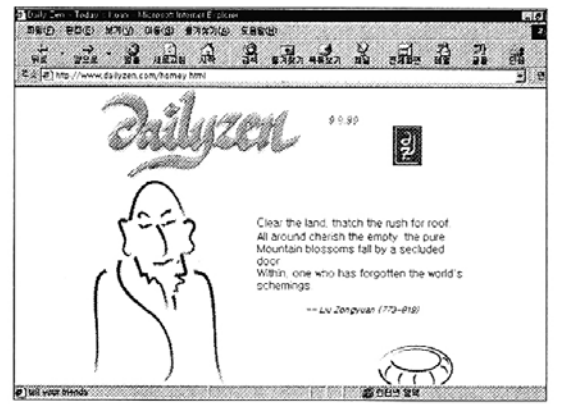
‘고승 법어와 선시’에는 달라이 라마(티베트)의 ‘법칙은 법칙 일뿐’, 티베트산승(베트남)의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페마 초드론스님(미국)의 ‘일승이의 명상’, 세월이 흘러도 따라 성(性)을 알게 되면/기쁨도 슬픔도 없겠지.”가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야기 방’ 메뉴를 이용하면 가상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이트로’ 메뉴에서는 불교사이트 가운데 선경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 8곳에 대한 연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에 개설된 수많은 불교 사이트를 점검·평가하고 있는 달마링(dharmaring)에서는 ‘데일리 쟈’ 사이트를 “사색적인 질문을 던져, 세간의 일상을 고양시키는 사이트”라고 평가하고 있을만큼 품격 높은 정보를 선보이고 있으며, 각 자료는 주단위로 새롭게 꾸며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http://www.dailyzen.com/homey.html



“발해 다양한 불교사상·종파존재” 문명대 교수 “발해조각의 뿌리는 고구려 양식” 최성은 교수

한국미술연구소 ‘발해미술의 ...’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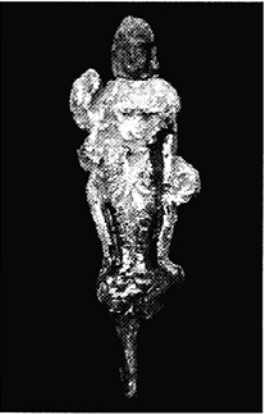
조각 건축 고분벽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술사적 접근을 시도한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제3회 국제학술회 ‘발해미술의 국제성과 한국적 특징’이 11일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주최로 개최됐다.

발해조각의 양식의 변천을 처음으로 초기 조각으로 나누며 살핀 문명대 교수는 발해불교가 현재까지는 통설로서 법화신앙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보다 유가유식사상을 주류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사상 및 종파가 존재하면서 해동불교성국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문 교수는 초기 발해 불상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형태나 양감, 선묘 등에서 발해적인 특징이 약간씩 가미되고 있고, 중기 조각은 세련되고 평면감나는 사실양식이었으나 몇 예가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며, 말기 조각은 나말여초나 중국의 당말오대 조각양식과 유사하게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특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신라와 비

슷하게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 발해의 멸망과 함께 상경의 사원들이 화재로 소멸됐기 때문에 말기 조각이 발해조각의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며 한국 조각사 편년설정에 매우 귀중한 예로 평가했다.

발해 조각 그 중에서 보살상의 양식을 살펴본 최성은 교수(덕성여대)는 발해 보살상 가운데 팔련성 출토의 상들은 남북조시대부터 수를 거쳐 초당까지의 양식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발해조각의 뿌리가 고구려 조각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또 당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경성 출토의 상들은 매너리즘과 현실화된 분위기, 밀교적인 성격 등을 띠고 있는 등 발해조각은 뒤에 오는 요(遼)대 조각 형성에 실재적인 모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발해 상경유적부의 사원건축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상경유적부 도성 안에 분포해 있는 절터 가운데 제1·제9절터와 6세기말 신라의



크라스키노 사원지에서 출토된 불상. 얼마전 분실됐다.

경주 황룡사지·함천 영암사지·영일 법광사지 금당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에서 내외진 이중 형식의 금당이 조성됐음을 밝혔다. 이 교수는 같은 시기 고구려나 당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외진 이중 형식의 금당이 유독 발해와 신라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라와 발해의 교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中 ‘방산석경’ 굴에 묻어 영구보존

중국 최대의 석경인 방산석경의 실물을 앞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대기 등 환경오염으로 경관이 마모되는 등 훼손이 심해 대비책이 논의되던 방산석경을 원래의 자리인 방산석굴에 영구보존키로 한 것. 지난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중국정부는 9일 오전 9시19분을 기해 방산석경을 지하에 1천7백만자가 새겨진 1만4천 278개의 석경을 묻었다.

지난 1956년 중국정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된 방산석경은 북경 방산구에 자리잡은 운거사에서 관광객에게 공개돼 왔다. 방산석경은 수나라 때



1999년 9월9일 9시19분에 묻힌 방산석경.

부터 한사람이 하루에 두글자씩 300여년이 걸려 조성한 석경으로 1천122부 3천572권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다. 방산석경 가운데 7개는 고려의 해월 스님이 증수한 것으로 운거사의 대웅전 앞 북쪽에 위치한 석비에는 해월스님의 사적이 새겨져 있다.

학술단신

‘사명당의 의의’ 학술회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건봉사는 17일 오후1시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를 주제로 제17회 불교학술회의를 동국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김종명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사명대사 유정의 정토사상’을, 박노자 교수(경희대)는 ‘승명 의거의 역사적 의의

를,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건봉사 사명당’을 발표한다.

비판불교 4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8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4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의 여래장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 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체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법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엮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어시어문은 “들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어시어문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